

경계를 넘어서: AfCFTA가 아프리카를 세계 최대 자유무역지대로 전환하는 방식

Josphat Machagua Policy Analyst
Kenya Institute for Public Policy Research and Analysis (KIPPRA)



AfCFTA의 설립 배경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 African Continental Free Trade Area)는 참여국 수 기준 세계 최대 자유무역지대¹⁾로, 54개 아프리카연합(AU: African Union) 회원국과 8개 지역경제공동체(RECs: Regional Economic Communities)²⁾에 걸쳐 약 14억 9,000만 명 규모의 지역 단일 시장 구축을 목표로 한다. 또한, AfCFTA는 아프리카연합의 ‘Agenda 2063³⁾’ 비전의 핵심 프로젝트 중 하나로,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약 3조 3,600억 달러(약 4,800조 원)³⁾에 달한다.

*지리적·경제적으로 인접한 아프리카 국가들 간의 지역 연합체

**2013년 발표된 아프리카의 장기 발전 전략으로, 2063년까지 아프리카를 자립적이고 통합되며, 평화로운 대륙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

AU 정상들은 2012년 1월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Addis Ababa)에서 개최된 제 18차 AU 정상회의에서 역내 국가들 간의 무역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성

1) About The AfCFTA <https://au-afcfta.org/about/>

2) Regional Economic Communities <https://au.int/en/recs>

3) AfDB Socio Economic Database <https://dataportal.opendataforafrica.org/nbyenxf/afdb-socio-economic-database-1960-2022>

장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AfCFTA 설립을 결정하였다. AfCFTA의 세부 사항은 2019년 3월 21일 르완다 키갈리(Kigali)에서 합의되었으며, 2019년 7월 니제르 니아메(Niamey)에서 개최된 제12차 AU 특별정상회의에서 공식 출범(실제 무역은 2021년 1월 1일부로 시작⁴⁾)하였다.

AfCFTA의 주요 목표: 역내 무역 비율 제고

아프리카는 세계 인구의 약 18.8%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세계 GDP에서는 약 3% 미만을 차지⁵⁾하고 있는데, 이는 특히 아프리카의 무역에서 역내 무역이 차지하는 비율이 저조하다는 점에 기인한다. 아프리카의 역내 무역은 주로 지역경제공동체 내에서만 이루어지며, 무역량은 국가 간 지리적 거리에 크게 영향⁶⁾을 받는다.

역사적으로, 여타 지역의 지역경제공동체들은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줄임으로써 지역 간 무역 비율을 개선한 반면, 아프리카 시장의 지역경제공동체들은 여전히 분열된 상태로 남아있다. 이는 주로 국경에서의 긴 대기 시간 및 복잡한 통관 절차 등의 요인에 기인하는 것으로 관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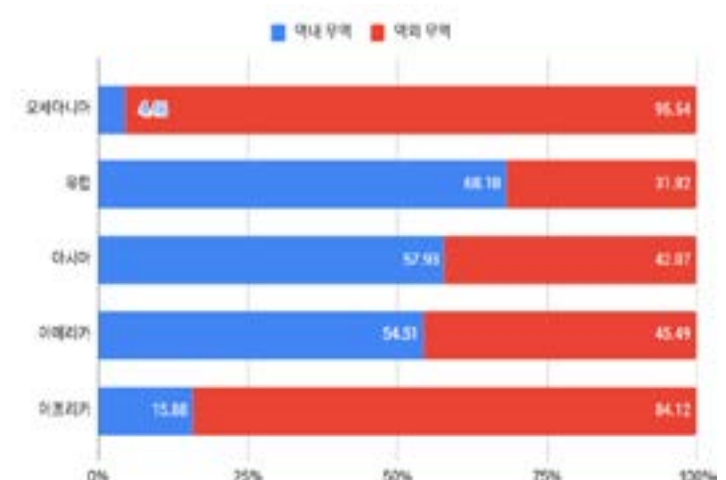
(여타 지역과의 비교)

아래 <그림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아프리카의 역

전문가가 바라본 글로벌 핵심 이슈와 시사점

내 무역 비율은 2023년 기준 약 15.88%로, 유럽(68.18%), 아시아(57.93%), 아메리카(55.51%) 등 여타 지역의 수치를 크게 하회⁷⁾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림 1.> 2023년 지역별 역내/역외 무역 비율 (백분율)



출처: UNCTAD(2024)

4) The African Continental Free Trade Area <https://au.int/en/african-continental-free-trade-area>

5) Africa in the world and the world in Africa <https://mo.ibrahim.foundation/sites/default/files/2023-07/2023-forum-report.pd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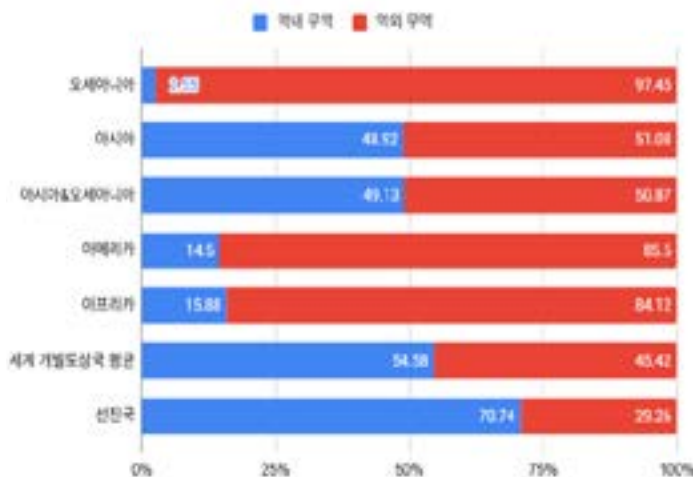
6) The AfCFTA impact on agricultural and food trade: a value-added perspective <https://academic.oup.com/erae/article/49/1/237/6398758>

7) Merchandise: Intra-trade and extra-trade of country groups by products <https://unctadstat.unctad.org/datacentre/dataviewer/US.IntraTrade>

(여타 개발도상국과의 비교)

아프리카의 역내 무역 비율은 여타 개발도상국 경제권과의 비교에서도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인다. 아래 <그림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아프리카의 역내 무역 비율은 약 15.88%로, 아시아(48.92%) 및 아시아·오세아니아(49.13%) 등 여타 지역의 개발도상국 대비 낮은 것으로 확인되며, 세계 개발도상국 평균(54.58%)을 크게 하회하는 것으로 집계된다.

<그림 2.> 2023년 개발도상국별 역내/역외 무역 비율 (백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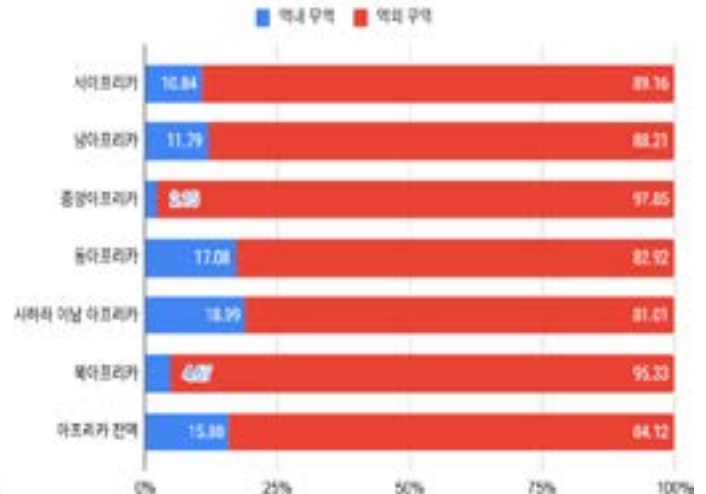
출처: UNCTAD(2024)⁸⁾

(아프리카 지역별 비교)

한편, 아프리카 대륙 내 지역별 비교에서도 역내 무역 비율이 상이한 것으로 확인된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18.99%)는 북아프리카(4.67%)에 비해 역내 무역 비율이 더 높으며,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내에서도 동아프리카(17.08%), 남아프리카(11.79%), 서아프리카(10.84%), 중앙아프리카(2.15%) 간 역내 무

역 비율이 상이한 것으로 집계된다.<그림 3. 참조>

<그림 3.> 2023년 아프리카 지역 별 역내/역외 무역 비율 (백분율)



출처: UNCTAD(2024)

이러한 상황 속, AfCFTA는 역내 무역 비율을 제고하여 글로벌 무역 시장에서 아프리카의 경제적 입지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AfCFTA 협정은 ▲아프리카 내 무역 확대, ▲지역 가치 사슬 강화, ▲산업화·혁신·경쟁 등을 촉진하는 것으로 평가되며, 궁극적으로 아프리카의 GDP를 2050년까지 약 29조 달러(약 4경 1,700조 원) 규모로 성장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⁹⁾된다. 또한, 농업, 제조업 및 서비스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여 아프리카의 만성적인 청년 실업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AfCFTA의 3단계 관세 철폐 프로세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International Trade

8) Merchandise: Intra-trade and extra-trade of country groups by product, annual <https://unctadstat.unctad.org/datacentre/dataviewer/US.IntraTrade>

9) United Nations, Beyond compensation: Reparatory justice as a structural economic imperative for Africa, <https://africarenewal.un.org/en>

Commission)에 따르면, AfCFTA의 관세 철폐 프로세스는 A(비민감 제품), B(민감 제품), C(제외 제품)의 3단계로 구성¹⁰⁾되어 있다. A 단계는 관세 항목의 90%에 달하는 비민감 제품(non-sensitive products)을 다루며, 지역 내 최빈개도국과 최빈개도국을 제외한 국가에 대해 각각 10년과 5년의 단계적 관세 철폐를 진행, 2030년까지 완전 관세 철폐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B 단계는 관세 항목의 약 7%에 해당하는 민감 제품(sensitive products)*을 다루며, 최빈개도국에 대해 13년, 최빈개도국을 제외한 국가들에 대해 10년의 관세 철폐 계획이 마련되어 있다. C 단계는 관세 항목의 약 3%에 해당하는 기타 제품(exclusion products)을 다루며, 동 제품들은 아프리카 수입 총액의 10% 미만에 해당하는 제품들이다.

*국내 산업 보호가 필요하거나, 정치·경제적으로 민감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제품

AfCFTA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이니셔티브

AfCFTA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이니셔티브에는 ①AfCFTA 전자 관세책, ②범아프리카 지불 및 결제 시스템(PAPSS: Pan-African Payment and Settlement System), ③AfCFTA 허브, ④조정 기금(adjustment funds) 등이 있다.

①AfCFTA 전자 관세책은 AfCFTA 관세 자유화 일정이 포함된 디지털 핸드북(digital handbook)으로, AfCFTA 관련 정보에 대한 온라인 접근을 제공¹¹⁾한다.

②PAPSS는 AfCFTA 관련 당국이 아프리카수출입은행 및 각국 중앙은행과 협력하여 개발¹²⁾한 지역 결제 시스템으로, 국경 간 효율적이고 안전한 송금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아울러, 현금 결제가 아닌 디지털 결제 방식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국경 간 무역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비공식 무역(informal trade)*에 대한 포용성을 강화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에 공식적으로 신고되지 않은 국경 간 상품 및 서비스 거래

③AfCFTA 허브¹³⁾는 지역 내 무역 당사자들을 연결하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특히 각국 중소기업들이 새로운 시장에서 성공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간 무역 기회를 제고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동 허브는 온라인 플랫폼의 방식으로 작동되어 비관세 장벽에 대한 모니터링·보고·제거 절차의 효율성을 강화¹⁴⁾할 것으로 예상된다.

④조정 기금은 AfCFTA 무역 체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당사국과 민간 부문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

10) AfCFTA Tariff Phasedown Schedule <https://www.macmap.org/en/learn/afcfta>

11) AfCFTA e-Tariff book <https://au-afcfta.org/etariff/>

12) PAPSS <https://au-afcfta.org/operational-instruments/papss/> <https://papss.com/>

13) Africa: AfCFTA launch online hub to ease trade on the continent <https://www.trademarkafrica.com/news/africa-afcfta-launch-online-hub-to-ease-trade-on-the-continent/>

14) AfCFTA Non-tariff Barrier Reporting, Monitoring and Elimination <https://www.tradebarriers.africa/>

되었다. 동 기금은 기본 기금(base fund), 일반 기금(general fund), 신용 기금(credit fund)의 세 가지 기금으로 구성된다. 기본 기금은 최빈개도국의 AfCFTA 전환 과정에서 재정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재정지원에 중점을 두며, 일반 기금은 모든 AfCFTA 회원국이 각국 산업을 자유무역 환경에 부합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정책, 인프라, 인적자원 등을 지원한다. 신용 기금은 대규모 물류·무역 인프라 및 산업혁신 프로젝트 등에 필요한 자금 대출 및 보증 제공을 목표로 한다.

AfCFTA 이행의 도전 과제

한편, AfCFTA의 이행에는 일부 도전 과제가 존재하는데, 이러한 도전 과제들은 AfCFTA의 잠재력 실현을 저해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현재 54개 AfCFTA 서명국 중 48개국만이 협정을 비준(수단, 베냉, 리비아, 라이베리아, 남수단, 마다가스카르, 소말리아 제외¹⁵⁾)한 것으로 확인되며, 에리트레아는 AfCFTA에 서명하지 않은 유일한 국가이다.

또한, 노후화된 인프라와 지역별 격차 역시 AfCFTA의 이행을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아프리카는 급격한 인구 증가와 함께 도시화가 가속화되면서 현대적이고 지속가능한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대폭 증가하였으나, 지역별로 주요 인프라, 상품, 서비스 분야 등의 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지역 별 인프라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연

간 1,300억~1,800억 달러(약 190조~260조 원)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¹⁶⁾된다.

아울러, 역내 다수 국가들은 농업 및 채굴 산업에서 유사한 제품을 생산·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이는 지역 간 무역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평가된다.

향후 전망 및 시사점

AfCFTA는 아프리카 54개국의 사회·문화·지리적 차이를 극복하고, 약 14억 9,000만 명 규모의 단일 시장을 구축함으로써 아프리카의 경제 성장을 위한 희망으로 작용하고 있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AfCFTA를 기반으로 ▲신규 무역 기회를 창출하고, ▲기업 성장을 촉진하며, ▲진보적이고 포용적인 아프리카를 건설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AfCFTA는 지역 간 무역 장벽을 제거하고 협력을 촉진하여 향후 청년층을 위한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궁극적으로 아프리카를 세계적인 경제 강국으로 부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를 위해 각국은 AfCFTA 이행 과정에서의 주요 도전 과제를 극복하고, 지역을 넘어 세계와 무역하는 아프리카를 구축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으로 관찰된다.

15) Status of AfCFTA Ratification <https://www.tralac.org/resources/infographic/13795-status-of-afcfta-ratification.html>

16) Large Infrastructure – African Futures <https://futures.issafrica.org/thematic/11-large-infrastructure/#:~:text=According%20to%20the%20AfDB%2C%20it,US%24108%20billion%20remains%20annually.>

〈참고자료〉

- Ajewumi, O. E., Afolabi, J. A., & Joe-Akunne, I. (2024). Regional trade agreements and economic integration in Africa: assessing the impact of the African Continental Free Trade Area (AFCFTA).URL. <https://wjarr.co.in/sites/default/files/WJARR-2024-2965.pdf>
- Fusacchia, I., Balié, J., & Salvatici, L. (2022). The AfCFTA impact on agricultural and food trade: a value-added perspective. European Review of Agricultural Economics, 49(1), 237-284.URL. <https://academic.oup.com/erae/article/49/1/237/6398758>
- Mensah, L. (2023). Intra-Africa regional trade comovements and shock transmission: A baseline for AfCFTA. Cogent Economics & Finance, 11(2), 2259738.URL. <https://www.tandfonline.com/doi/full/10.1080/23322039.2023.2259738#abstract>
- Wapmuk, S., & Ali, J. M. (2022). The African Continental Free Trade Area (AFCFTA) and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prospects and challenges. Zamfara Journal of Politics and Development, 3(1), 15.URL. <https://www.zjpd.com.ng/index.php/zjpd/article/view/66/58>
- Business Ghana, AfCFTA's Three Initiatives

To Boost Trade in Africa, 2025.02.27,
<https://www.businessghana.com/site/news/business/323604/Building-the-%E2%80%9CAfrica-We-Want%E2%80%9D-Together>

EMERiCs 이슈분석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서 발간하고 있으며, 저작권 정책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제 4유형’에 따릅니다. 해당 원고에 대해 사전 동의 없이 상업 상 또는 다른 목적으로 무단 전재·변경·제 3자 배포 등을 금합니다. 또한 본 원고를 인용하시거나 활용하실 경우 △출처 표기 △원본 변경 불가 등의 이용 규칙을 지켜셔야 합니다.

본 원고에 대한 글, 그림, 사진 등 저작권자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모든 자료에 대한 저작권 책임은 저자 본인에게 있으며, 해당 원고의 의견은 KIEP 및 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